

EU·OECD·ILO의 코로나19 경제전망에 대한 고찰

김남수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0.4.13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전화: 02-2670-9110 | 전송: 02-2635-1134

목차

〈요약〉	1
1. 들어가며	3
2. 전염성 질병의 경제 파급 경로에 대한 시각들	4
3. 세계 경제기구의 경제전망	10
4. 결론 -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26

요약

- 이 보고서는 해외 주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보는 시각적 토대로 맑스주의적 입장과 케인즈의 시각에 근거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봄.
- 맑스주의 입장은 맑스의 신진대사 균열(metabolic rift)론은 환경 내지 신진대사 관찰 방법에 근거하여 살펴봄. 특히 이것은 자연과 사회의 복잡한 상호관련관계 관찰방법으로, 맑스는 독일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Justus von Liebig)의 토양 신진대사의 균열에 초점을 맞추었다. 식품과 섬유를 많이 떨어진 국가에서 가져오더라도 질소, 인, 칼륨같은 토질 필수 영양분의 손실을 감내해야하고 그러한 토질의 손상은 도시를 오염시키게 된다. 지속적인 축적을 위한 자본주의 생산은 맑스가 말하는 “자연의 일반적 신진대사”의 균열이나 파괴를 야기하게 되어, 이러한 자본주의의 수직적 자본축적에 따라 자연의 신진대사가 파괴되어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된다고 보는 시각임
- 케인즈의 시각은 국민소득 순환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충격이 경제위기를 가져옴. 첫째, 급여를 받지못한 가계는 재정적인 고통을 겪게되고 그들의 지출을 줄이고(국내수요감소), 둘째, 국내수요충격은 국가수입에 타격을 주고 결국 외국인에 대한 자금흐름을 줄이게 되어, 국내 수요는 직접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반면에 해외수입을 줄이게 되어 국가의 수출에 대한 해외지출이 줄어들고(수출감소), 이러한 수요감소 및 직접적 공급충격은 국제 및 국내 공급체인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고, 셋째,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가 예상될 수 있음.

- 여기에서 경제전문가 예측은 EU, OECD, ILO 세 개 기관으로 한정함
- EU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중국과 몇몇 소수 국가만인 경우에는 2020년 세계성장은 0.5%정도 둔화되고, 북반구로 확산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GDP 성장은 1.5%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 OECD는 2020년의 전세계 경제성장은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예측한 수치 의 절반 수준인 1.5%로 하락이 예상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에 따른 경 제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며, 취약계층과 사업체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제안하고 있음.
- ILO는 노동계에 어떻게 영향을 첫째 (실업과 불완전고용 두가지 모두에 대 한) 일자리의 양, 둘째 (급여 및 사회보호 접근과 같은) 노동의 질, 셋째, 불리한 노동시장 성과에 취약한 특정 집단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음.
-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해봄.

1. 들어가며

수잔 손택은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어떤 질병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더 처벌받을 만한 것은 없는데, 그 이유는 부여하는 의미가 도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녀의 글을 빌리지 않더라도 질병은 하나의 ‘은유’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코로나19가 특히나 그렇다. 오늘날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 19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 인간 관계와 국가 관리 시스템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질병이 종식되더라도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최초 감염자를 제때 격리시켰어야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여기저기 돌아다닌 인간은 잡아 가둬야 해” 같은 ‘폭력적인’ 언사가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오고, 너도나도 이에 동의하는 이 전염병의 세월 속에서 결국 모든 이들이 뼈저리게 재확인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아닐까 싶다.

2020년 1월 20일과 1월 24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와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두 명 다 공교롭게 중국 우한에서 인천으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중국혐오”,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에는 “신천지 혐오” 등으로 혐오대상을 찾기에 바빴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상 가해의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도 또한 피해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과연 전염이라는 성질을 가진 질병으로 인해 그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과 그로 인한 비감염자의 피해의 성격은 무엇일까?

즉, 감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피해자인 확진자를 혐오하는 것이 공동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혐오를 통한 대응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여기서는 코로나 19가 가진 전염성으로 인해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떤 피해가 예상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현재

의 경제이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위해 기존의 경제이론의 틀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에 의한 경제적 위기를 보는 경제적 이론 틀에 대해 분석하고, 국제기구의 경제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전망이 갖는 시사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해본다.

2. 전염성 질병의 경제 파급 경로에 대한 시각들

(1) 맑스주의 입장

□ 코로나 19발생

- 처음에는 중국에서 발생(2019.12.8. 최초환자 발생보고)하였으나, 이후 세계적 확산을 통해 팬더믹한 상황이 전개됨
- 이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공포와 그로 인한 경제활동의 약화 우려 확대

□ 맑스의 신진대사 균열(metabolic rift)론

- 사회경제적 관계와 무관할 수 없는 질병 발생과 질병의 결과
- “사회적 신진대사에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발생하고 자연에 대해 인간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노동을 이윤을 통한 자본축적에 사용하고 자 하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에서 필연적인 경향성을 띠
 - 존 벨라미 포스터가 이 용어를 차용한 것임

□ 신진대사 균열론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의 코로나19가 낳은 팬더믹 상황은 자본주의 이윤추구로 인한 환경오염에 따른 결과

- 롭 월레스(Rob Wallace)는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자본순환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함(Wallace, etl. al. , COVID-19 and Circuits of Capital, *Monthly Review*, March 27, 2020.).

- 월레스는 그의 논문에서 그 출현 주기가 짧아진 사스, 메르스, 또 최근 바이러스 발생의 원인이 농업생산 방식이 기업식 영농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 때문이라고 주장.
- 종(種) 생태계의 분열이 나타나게 되었고 수차례 글로벌 팬더믹을 일으켰다는 주장.
-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자연간의 신진대사 균열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 사회주의라고 주장

□ 전혀 새롭지 않은 벨라미 포스터의 환경-역학적 비판

- 엥겔스의 산업혁명 시기 유행한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설명 존재
 - 1845년 출판된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에서, 이후 나타난 여러 노동자들의 질병 감염과 죽음을 ‘사회적 살인(social murder)’이라고 지적함.
- 레이 랭케스터(Ray Lancaster)는 그의 책 인간의 왕국(Kingdom of Man, 1911)의 자연의 복수라는 장에서 모든 현대 전염병은 인간이 환경조건을 바꿔서 나타난 것이라고 함.
 - “많은 가축과 작물을 생산하려는 욕심으로, 인간은 토지에 부자연스러운 종의 무리를 모아 두게 된다.” 고 하며, 새로운 기생충,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증가되게 된다고 주장.

□ 맑스주의 시각이 주는 시사점

- 자본주의는 종, 생태계의 분열을 창출하고 우리 시대의 사회와 환경모순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축적체제 모순에 이르게 하는 자연을 자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시기임.
 - 자본주의 체계는 동시에 계급과 제국의 차이를 넓히고 최악의 환경 위기를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반면에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체계로, 이러한 의미에서 엥겔스는 “사회적 자

살”이라고 함.

□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 방법

- 브레히트의 1961년 ‘살아남은 자의 슬픔(Tales from the Calendar)’처럼 불난 집에서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임.
 - 좌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축적의 목적으로 무한히 사용하는 자연혜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이 더 빠를 수 있음.
- 자본주의 체제는 실패했기에 필연으로서의 자유에 의거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보다 평등한 세계를 추구해야 함.
 - 혁명적 새로운 토대 위에서 사회를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은 극명함. 몰락이냐 아니면 혁명이냐?

□ 이러한 궁극적 방법을 추구하기에는 현재의 위기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 이러한 맑스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토대는 우연히 주어진다기보다는 주체역량을 끊임없이 키울 수 있는 조직역량으로 담보해야 할 것임.
- 현재 COVID-19로 인한 위기는 건강위기와 그로 인한 실업과 급여감소 등과 같은 생계문제와 같은 경제적 투쟁도 중요하기에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 본질적인 접근방식보다는 현상적인 접근을 위해 케인즈주의 입장에 기대어 봄.

(2) 케인즈주의 입장

□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두 가지 위험 발생

- 건강위험으로 감염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
-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인한 생산축소 및 그로 인한 작업손실, 그리고 일거리 축소로 인한 실업과 그에 따른 소득감소의 위험.

□ 여기에서는 건강상의 위험은 논외로 하고,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본질적 접근보다는 경제적 피해의 현상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케인즈주의 입장에 기대어 봄.

□ 경제 활동 주체는 서로 연관된 관계로 엮여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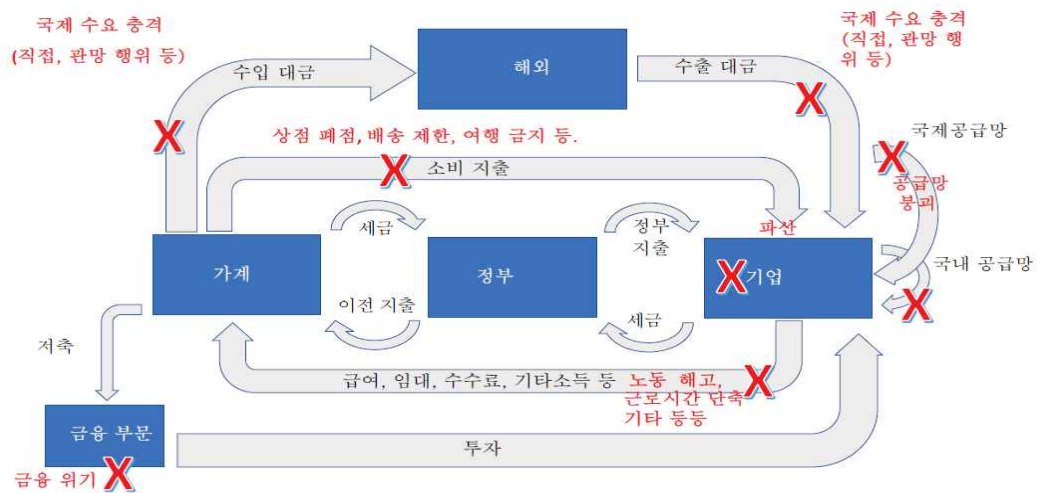
-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Pierre-Olivier Gourinchas)의 주장이 바이러스 관련 충격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줌.
 - “현대 경제는 서로 관련된 사람 - 노동자, 기업, 공급업자, 소비자, 은행과 금융기관 - 들 간에 엮여있는 복잡한 거미줄 같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의 직원, 고객, 대부자이다.”로, 질병이나 봉쇄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구매자-판매자 관계중 하나가 파괴된다면 붕괴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임.
- 이러한 내용을 국민 순환 흐름으로 나타내어 봄(〈그림 1〉).

□ 경제순환 모형도

- 가계, 기업,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만 존재하는 단순한 형태
 - 가계는 자본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그것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주는 반대급부(이윤과 임금)를 통해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함.
 - 이러한 순환이 끝나면 경제는 성장하게 됨.

- 즉, 어느 지점에서든 이 순환을 방해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경제는 성장이 어려워짐.
- 코로나19로 경제순환을 방해하는 지점이 어디에서 발생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간단한 경제순환 모형도를 그려봄(〈그림 1〉).

〈그림 1〉 국민소득 순환사이에 발생하는 코로나19의 다양한 충격들



□ 경제순환모형도 상의 세 지점에서 발생하는 위기

- 그림상의 X표는 코로나 19로 발생하는 경제순환도의 충격을 의미
- 환자의 경우 격리(Quarantine)되고 감염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건강상의 위협으로 인한 국민보건정책으로 시행됨
- ① 이러한 보건정책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보편적으로는 ‘수입이 줄어든’) 가계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들의 지출을 줄이게 됨(국내수요감소).
- ② 이로 인해 국내수요 감소는 국내 생산제품과 수입제품 모두를 줄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의미로 외국의 경우는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됨
 - 이로 인한 파생효과가 발생되는데 감염국이나 감염 위험국의 수

요감소로 인해 제조업의 경우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를 국내외 제조업 모두가 겪게 됨으로써 국제 공급체인의 붕괴를 가져오게 됨

- 이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생산량은 더 감소됨
- 제조업 부문의 생산축소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구매하려는 관망적 태도의 소비를 확산시키게 되고, 기업의 경우에는 지켜보다가 투자하려는 관망적 투자를 하게 함.[공급체인망 충격 발생]

③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파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질병의 우려가 끝나도 과거의 경제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지점이 될 것임.

- 이러한 기업파산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날 수 있음.
- 이 상황이 발생되면 우려되는 것은 대출자와 노동자들이 지급받지 못하면 그들은 적게 쓰고 적게 투자하게 되고, 위기의 규모나 지속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게 됨[기업의 도산과 실업발생].

□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결론

- 국내 소비 축소
- 국내소비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와 그로 인한 수출감소
- 기업 제품판매의 축소로 인한 급여삭감 및 해고
-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존재

3. 세계 경제기구의 경제전망

□ 어두운 경제전망을 내는 세계기구들

□ 과거의 경제위기와 다른 코로나19 경제위기

- 과거 경제위기와 다른 점은 경제외적 요인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
 - 2020년 초만 해도 세계경제는 잘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었음.
- 경제적으로 파생된 위기가 아니기에 이번 위기의 경제적 영향의 규모나 지속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경기가 V자 형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었음.
 - 지금의 상황은 바뀌어 V자 형태 회복이 여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음.
 - 질병은 급속도로 여러 국가로 확산되어, 사실상 팬더믹 상황이 되었고, 2020년 4월 2일 현재 코로나 19 감염국가는 203개국에 달함.

□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 바이러스가 G7과 중국에 닥친 위기임.
 - 이 점에서 이번 팬더믹은 다른 측면이 존재
 - 이전의 전후 팬더믹이 경제적 우위가 떨어지는 국가에서 발병하였기에 그 팬더믹의 경우 적은 영향을 미쳤음.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환자수는 SARS환자수보다 8~9배 많다는 점도 다른 점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 발병국이 G7+중국이라는 사실

〈표 1〉 큰 경제권과 COVID-19

	GDP	제조업	수출	제품수출	코로나19 환자수*	코로나19 사망자수*
미국	24%	16%	8%	8%	216,721	5,112
중국	16%	29%	13%	18%	82,394	3,312
일본	6%	8%	4%	5%	2,384	57
독일	5%	6%	8%	10%	77,981	931
영국	3%	2%	2%	3%	29,865	2,352
프랑스	3%	2%	3%	4%	57,763	4,032
인도	3%	3%	2%	2%	2,032	58
이탈리아	2%	2%	3%	3%	110,574	13,155
브라질	2%	1%	1%	1%	6,931	244
캐나다	2%	0%	2%	2%	9,731	129

출처: World Bank World DataBank;

코로나 발병건수와 사망자수는 2020.4.2. 기준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ies>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세계 수요공급(GDP)의 60%, 세계 제조생산의 65%, 세계 제품수출의 41%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독일과 미국은 세계공급체인의 일부인 이러한 경제권의 고민은 점차적으로 모든 국가에 ‘공급체인’으로 확산되어 세계 제조업에게 큰 충격이 될 것임.

□ 【공급충격 발생】 세계 경제에 오는 세 가지 공급 충격

- 세계 제조업 중심지 감염으로 나타난 직접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의 파괴
 - 세계 제조업 강국인 동아시아와 미국 및 독일에 확산된 코로나19 감염.
- 감염 발생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급체인 악영향 발생

- 감염이 심각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필요한 제조원자재를 얻기 어렵거나 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급체인의 악영향(supply-chain contagion)발생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국가의 제조업에도 공급충격이 발생될 수 있음.

○ (1) 경기침체로 총수요 감소, (2) 소비자들의 관망 구매와 기업의 투자 지연으로 인한 소비감소 발생예상

□ **【수요충격 발생 우려】** 상품을 재고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2009년의 무역대붕괴(Great Trade Collapse)처럼 ‘갑자기 멈추는’ 수요충격 발생도 우려됨.

○ 2009년 무역대붕괴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교역 총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현상을 말함.

- 이 시기는 2007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이 영향으로 국제교역의 침체가 동반되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음..

□ **【서비스 부문 충격도 있으나, 가장 충격이 큰 부문은 제조업】** 감염된 모든 국가에서 레스토랑, 극장 등이 텅 비는 등 서비스 부문도 큰 타격 존재하나 가장 타격이 큰 부문은 제조업임.

(1) EU의 경제전망

□ 최근 경제위기 현황

- 코로나19는 처음에는 중국의 충격으로 나타났고, 이후 아시아지역에, 이제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 공통되는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 19위기 이전 마지막 글로벌 충격은 2008년 리만사 몰락한 직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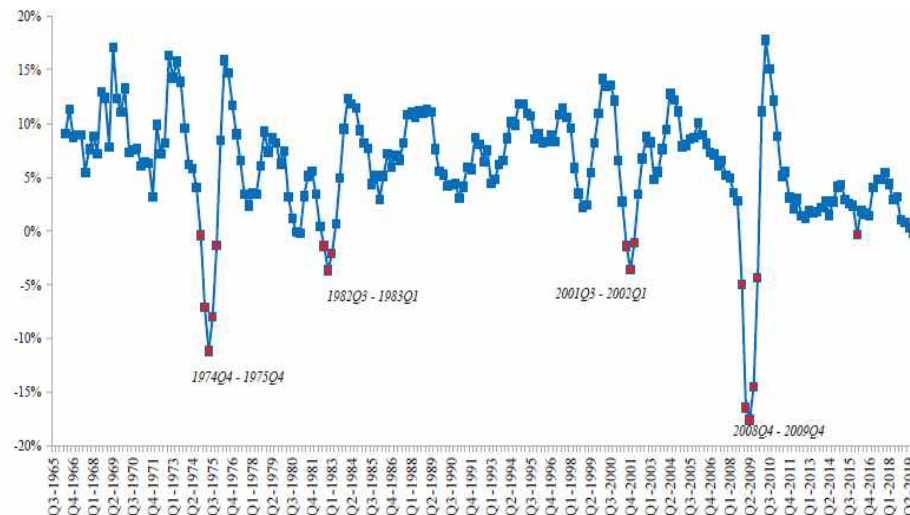
- 2008년 말 북미 서브프라임 위기로 글로벌 위기를 겪었고, 주요 G7국가들의 대규모 은행은 금융위기를, 대규모 은행이 없는 100여 개국 이상의 국가는 무역위기를 경험.

□ 2008~9년 세계위기의 경험으로부터 이번 위기의 외적 경계에 대해 언급함[리처드 볼드윈과 에이이치 토미무라(Richard Baldwin and Eiichi Tomimura)].

□ 무역대봉괴를 가져온 2008~9년 위기

- 이 위기는 대공황 이후 세계무역의 가장 급속한 감소를 보였고, 이 당시 하락은 심각한 수준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을 보였음(<그림 2>).
- 당시 세계무역 성장이 1년 이상 마이너스로 존재한 것으로 짧지 않은 기간 지속되었음.

<그림 2> 세계무역량의 분기별 성장(1965~2019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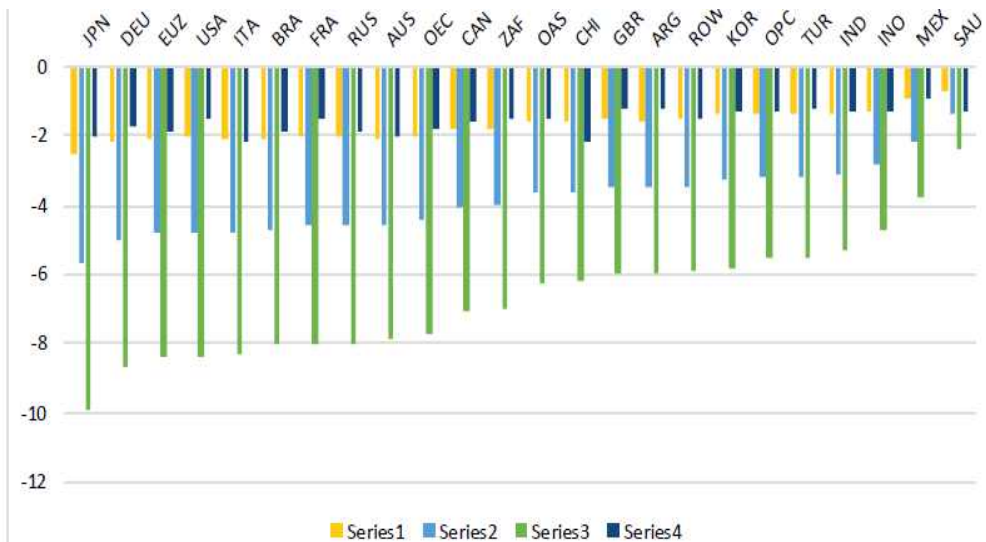


□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로렌스 부네, 데이비드 하우, 나이젤 페인, 베로니크 살랭(Lourence Boone, David Haugh, Nigel Pain, and Véronique Salins)]

- 기본 시나리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중국과 몇몇 소수국가만인 경우
 - 2020년 세계성장은 0.5%정도 둔화
- 부정적 시나리오: 북반구로 확산되는 경우
 - 2020년 GDP 성장은 1.5%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영향이 오는 것은 수요의 감소 때문이긴 하지만, 불확실성도 중요함
- 이번 위기가 V자형이라기보다는 U자형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캐서린 만(Catherine Mann)
- 그러한 문제를 국가별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어떤 부문과 국가의 경우 짧고 심한 충격으로 과거의 성장경로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V자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국가나 부문의 경우에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것임.
 - 즉, 국가나 부문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최소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글로벌 데이터로 볼 때 U자형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 서비스 부문은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L자형으로 볼 수도 있음.

〈그림 3〉 2020년 GDP 손실분 기준과 편차



- 중국과 세계의 충격의 정도를 달리 추계한 워릭 맥키빈(Warwick McKibbin)과 로셴 페르난도(Roshen Fernando)
-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2020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Boone등의 분석보다 4배나 크다고 주장함.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일본의 GDP가 거의 10% 감소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다음으로 독일과 미국으로 각각 8%정도의 GDP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추정함.

□ EU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

- 베더 디 마우로(Werder di Mauro)의 입장
 - “경제충격의 크기와 지속정도는 정부가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직면한 공포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함.
 - 정부대응이 긍정적 측면을 가져올수도 비관적 측면을 가져올 수도 있음.
 - 긍정적 측면으로는 정책당국이 경제위기 대응을 공동으로 하는 계기가 되어 현안 문제인 기후변화협약 같은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와 협력 정신이 재구축될 수도 있음.
 - 비관적 측면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경제위기가 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화를 해체시킬 수도 있음
- 수차례 위기 경험에서 나타난 정부대응처럼 이번 위기도 로흐사흐 잉크반점 검사(Rorschach Ink blot test) 같은 것일 수 있다고 주장
 - 무엇보다 정부의 신뢰가 중요하며 이러한 대응과정에서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의 가치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부정적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한 거시차원의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요구될 것이고 명확히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

(2) OECD 경제전망

□ OECD의 2020년 경제예측 수정

○ **【기본 전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발생으로 상당한 인간적 고통과 중대한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중국의 생산위축이 글로벌 공급체인상 중국이 중요하고 비중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느껴지고 있고, 다른 경제의 경우에도 그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음. 성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큼.

○ **【전망의 내용】** 2020년 1/4분기에 중국의 전염병 절정상황과 다른 국가의 발생으로 인해 세계경제성장은 2019년 11월 경제전망보다 1/2%p 하락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연간 세계 GDP성장은 전체적으로 2020년에는 2.4%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2020년 1/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 존재함.

○ **【전망의 결론】** 중국에 대한 예상은 매우 큰 폭으로 고쳐져, 올해 성장률이 5%이하로 떨어졌다가 산출량회복이 발생이전으로 돌아오면서 2021년에는 6%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

【다른 국가에 대한 전망】 신뢰, 금융시장, 여행부문 및 공급체인의 붕괴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2020년 모든 G20 국가경제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국과 강력하게 상호연관된 일본, 한국, 호주는 더욱 그러할 수 밖에 없음.

【국가정책으로 인한 전망 및 개선에 대한 비전】 바이러스 발생이 줄어든다면 바이러스에 노출된 대부분 국가경제에서 잘 취해진 정책적 조치는 신뢰 및 소득에 영향을 미쳐 2021년에는 3.25%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정도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유럽 및 북미의 경제전망은 현저히 악화될 것이고 이러한 속에서 2020년의 전세계 경제성장은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예측한 수치의 절반 수준인 1.5%로 하락이 예상됨.

□ OECD의 정책제안

○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 존재.

- 바이러스 발생 기간 동안 감염과 전염을 막기 위해 효과적이고 풍부한 공중보건조치를 취하고 의료보험제도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잘 겨냥된 정책을 보완하고 취약계층과 사업체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필요.
- 문제는 그것을 지원하는 거시경제정책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줄어든 수요의 회복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강제적 폐쇄나 여행제한으로 초래된 당면한 혼란을 상쇄시킬 수는 없음.
- 위협으로 인한 손실이 실현되고 성장률이 장기간동안 낮아지고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진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봉쇄 및 완화조치, 저소득 경제를 지원하고 함께 재정지출을 증가시킨다면 신뢰를 회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임.

〈표 3〉 2020년 3월 2일자 OECD 경제전망 예측치

	2019	실질 GDP 성장			
		연간 % 변화율			
		2020 잠정 예상	기존과 차이	2021 잠정예상	기존과 차이
세계 ¹	2.9	2.4	-0.5	3.3	0.3
G20 ^{1,2}	3.1	2.7	-0.5	3.5	0.2
호주	1.7	1.8	-0.5	2.6	0.3
캐나다	1.6	1.3	-0.3	1.9	0.2
유로지역	1.2	0.8	-0.3	1.2	0.0
독일	0.6	0.3	-0.1	0.9	0.0
프랑스	1.3	0.9	-0.3	1.4	0.2
이탈리아	0.2	0.0	-0.4	0.7	0.0
일본	0.7	0.2	-0.4	0.7	0.0
한국	2.0	2.0	-0.3	3.3	0.1
멕시코	-0.1	0.7	-0.5	1.4	-0.2
터키	0.9	2.7	-0.3	3.3	0.1
영국	1.4	0.8	-0.2	0.8	-0.4
미국	2.3	1.9	-0.1	2.1	0.1
아르헨티나	-2.7	-2.0	-0.3	0.7	0.0
브라질	1.1	1.7	0.0	1.8	0.0

중국	6.1	4.9	-0.8	6.4	0.9
인도 ³	4.9	5.1	-1.1	5.6	-0.8
인도네시아	5.0	4.8	-0.2	5.1	0.0
러시아	1.0	1.2	-0.4	1.3	-0.1
사우디아라비아	0.0	1.4	0.0	1.9	0.5
남아공	0.3	0.6	-0.6	1.0	-0.3

주: 이 예상은 2월 28일까지의 정보에 기반한 것임. 2019년 11월 경제예측치와의 차이를 어림수에 기반한 %로 나타냄.

1.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ies)로 평가한 명목 GDP 가중치의 이동평균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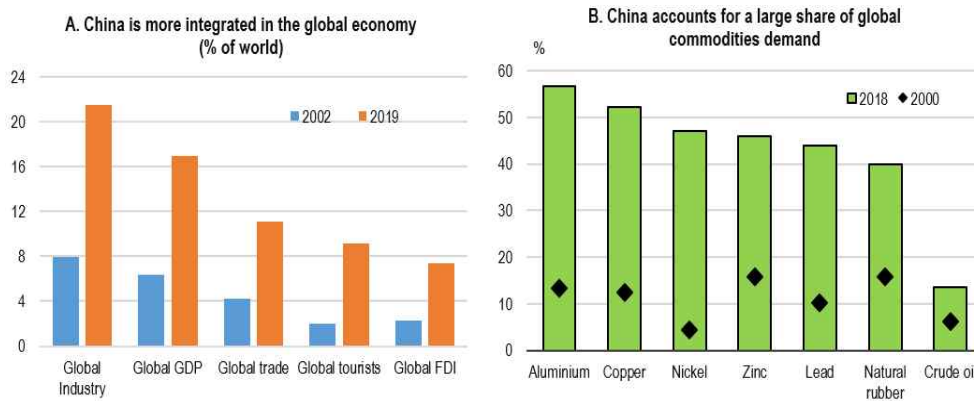
2. 유럽연합국은 모두 G20의 회원국이지만 G20국가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회원국인 국가도 포함됨.

3. 4월에 회기가 시작됨

□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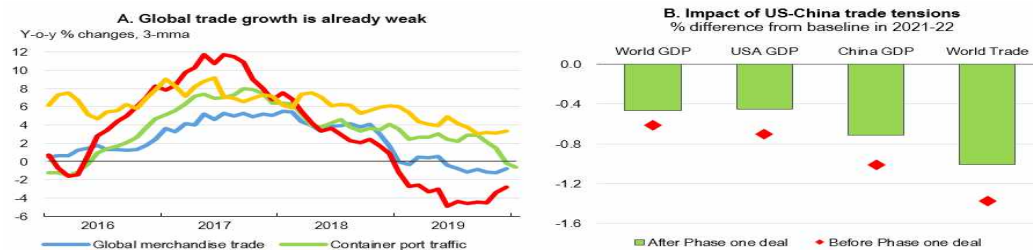
-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춰지고 세계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해짐.
- 중국의 경우 봉쇄노력으로 노동력 이동 및 여행의 격리 및 제한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춘절(春節)이후 공장재개 지연 및 많은 서비스 부문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되는 동안에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심각한 생산량 축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
- 그 이후 한국 및 이탈리아를 포함한 국가에서의 잇다른 발병에 따라 격리 및 소규모이긴 하지만 국경폐쇄 같은 신속한 봉쇄조치가 있었음.
- 세계 공급체인의 직접적 붕괴 및 수입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감소가 유발되고, 금융시장에서는 위험기피성향이 증가되어 미국 10년채권의 이자율 하락이 최저를 기록하고 주가가 급락하며 상품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사업체나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게 되었음.
 - 2003년에 SARS발병으로 과거의 유사한 에피소드가 발생했을 때보다 세계경제는 더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으로 중국은 세계생산, 무역, 관광 및 상품시장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발생된 부정적 충격은 다른 국가로 경제적 파급력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고, 발생의 최고점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생산과 수요의 점차적 회복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2020년 세계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림 4〉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



주: 실질 미 달러기준 산업, GDP, 무역비율, 경상 미달러 기준 국제 해외직접투자(FDI)비율, 해외여행객 비율 데이터는 2002년과 2017년, 해외직접투자(FDI)데이터는 2005년과 2018년임. 산업데이터는 부가가치기준이고 건축부문이 포함된 것임.

〈그림 5〉 무역분쟁 지속적 발생으로 인해 국제무역의 하락



출처: OECD 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의 2019년 10월의 OECD FDI그림과 세계은행(World Bank)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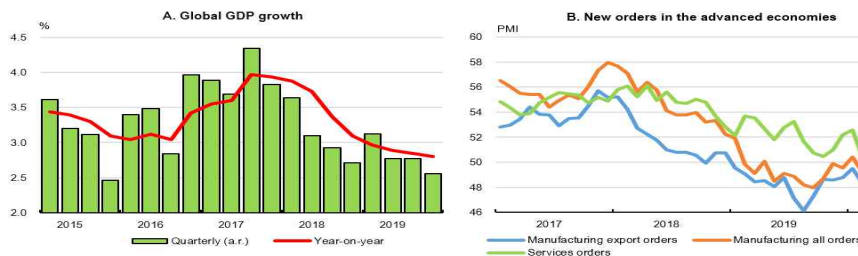
□ 미약하나마 경제 안정 징후가 보였던 코로나19 발생이전 상황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경제활동 데이터는 미약하긴하지만 조사 지수들은 제조업체나 서비스업 모두에서 안정되거나 개선(〈그림 2〉 참조).
 - 재정상황이 좋아졌고 그에 따라 통화정책의 증가가 수반되면서 무역정책의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했었음.
 - 당시 경제예측의 경우, 세계GDP 성장이 많은 국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 파업, 사회불안, 자연재해 등으로 2019년 4분기부터 (PPP기준으로 연비율로 나타내면) 2.5% 조금 위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었음.
- 미국의 경우 성장률이 추세를 따라왔지만 수요는 일본의 경우 작년 10월에 소비세 인상에 따라 급감하였고 독일을 포함하여 국제무역의 하락

이 두드러져 경제가 다소 취약했었음.

- 산업생산은 2019년말부터 지속적으로 정체되어왔고 소비지출 증가는 지속된 고용안정이득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을 상실하였음.
- 세계자동차 판매량 감소 속도는 2019년 내내 줄어들었으나 수요는 이후 감소되었음(세계판매량 10%감소(2020.1월), 중국의 경우 20% 감소).
- 국제무역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음. 상품무역량은 2019년 4분기에 축소되었고 2019년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다(<그림 3> A 참고).

<그림 6> 발전 동력을 잃은 세계경제성장



주: 구매력평가지수(PPP)기반한 실질 GDP. 2019년 4분기 데이터는 추정치임. 선진국 경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시리즈는 호주, 유로지역, 일본, 영국과 미국의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가중평균치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및 Markit.

(3) ILO의 경제전망

□ 코로나 19 팬더믹 상황

- 148개국에서 17만명이 감염되었고, 6,500명 이상이 사망함. 이는 세계 인구 비중에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 것임.
- 어떤 추정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82%가 감염될 것이라고 함.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성격

- 이 위기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라는)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라는) 수요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미 경제 및 노동시장 충격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 초기에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생산 지연은 전세계에 확산되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항공, 여행업, 병원산업들은 최근들어 수입감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특정부문에서는 파산이나 실직의 위협이 존재.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운영유지가 특히나 어려워졌음.
 - 여행금지, 국경폐쇄 및 격리조치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없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특히 비정형 비정규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수입에 연쇄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음.
 - 많은 경제권내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없거나 꺼려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공포가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은 투자, 제품구매, 노동자 채용을 연기할 것임.
-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고용이 양과 질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경제전망 수정치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세계경제가 최소한 2020년 1/4분기에는 실질적으로 하락한다고 예측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경기침체의 신호처럼 보임.

□ 코로나19상황에서의 정부정책 방향

-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강력한 다자 지도체제속에서 코로나 19바이러스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건강효과를 제한하고 글로벌 경제에 간접적인 경제침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잘 조정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국가보건 정책】**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임.
 - **【소득보전을 위한 수요정책】**전염 혹은 경제행위의 위축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요측면 조치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요하고, 이러한 소득보호조치도 전염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여기려는 유인을 막을 수 있게함.

□ 수요주도 경기회복강화와 보편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정책개혁 필요

- 노사정 조직간에 사회적 대화가 공통체 차원부터 글로벌 차원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해법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주요수단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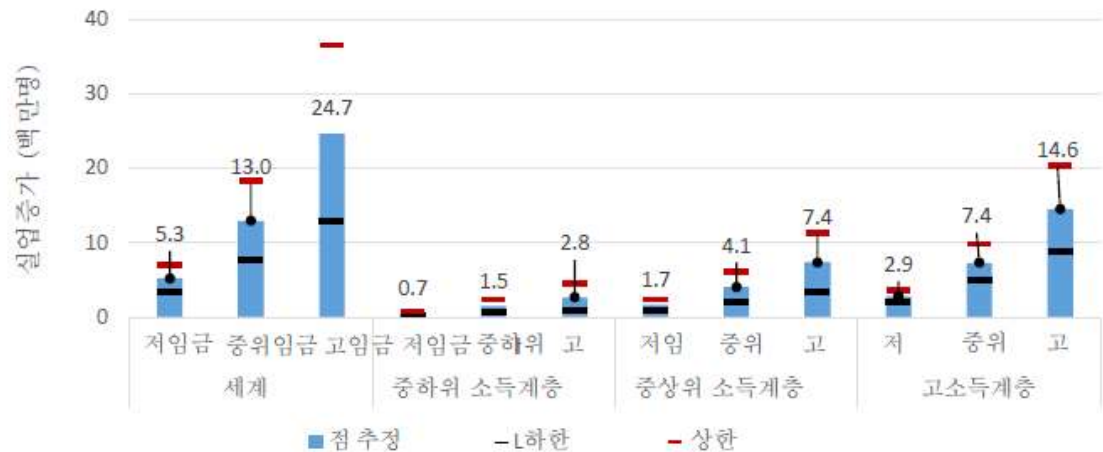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노동계에 미칠 영향

- (실업과 불완전고용 두가지 모두에 대한) 일자리의 양
- (급여 및 사회보호 접근과 같은) 노동의 질
- 불리한 노동시장성장에 취약한 특정집단에 대한 효과

□ 실업 및 불완전 고용에 대한 영향

- ILO는 바이러스 발생으로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많이 증가한다고 추정
 - **【최저 530만명~최고 2,470만명 실업추정】**글로벌 GDP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한 다른 시나리오에 바탕하여 초기에 ILO는 감염이 적은 상황에서는 530만명에서 감염이 많은 상황에서는 2,470만명의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
 - **【평균 1,300만명 실업추정】** 중간정도의 감염수준이라면 1,300만명의 실업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불확실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8~9년 국제 금융위기에서 발생한 실업은 2,200만명이었음.

〈그림 7〉 세가지 시나리오하에서 세계 및 소득계층별 실업에 대한 글로벌 성장의 효과



○ 실업 대폭증가 예상

- 이전 위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노동수요에 대한 충격은 급여와 노동시간의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자영업의 경우 경기하락시 잘 적응할 수 없다면 비공식 경제에서처럼 생존하기 위해 파산선언을 하거나 소득을 유지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불완전고용은 위기상황 동안 증가하는 경향 보일 것임.
-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감소와 사람의 이동제한으로 이러한 제한상황은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 2020년 첫 두달동안 제조기업의 총 부가가치가 13%하락한 것으로 나타남¹⁾.
- 글로벌 및 지역 공급체인이 붕괴하였다. 서비스 부문, 관광사업, 여행 및 소매업이 특히 취약해졌음.
- 세계 여행관광협회(World Trade and Tourism Council)의 초기 판단에 따르면 2020년 국제항공편 승객은 25%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수백만개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함.

1) 国家统计局, 1—2月份工业企业利润受疫情影响明显下降, 1~2월 제조업 기업이익이 역병 영향으로 현저히 하락하였다., http://www.stats.gov.cn/tjsj/sjjd/202003/t20200327_1735115.html

□ 노동소득 및 노동빈곤에 대한 영향

○ 격리조치와 그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로 줄어드는 노동공급

- 3월 10일 이루어진 예비 추계에서는 감염노동자가 거의 30,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결과 보호받지 노동자들의 경우 소득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었음.
- 이러한 고용 영향으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소득손실을 입게됨.
- 노동소득의 총 손실액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8,600억불에서 3조 4,400억불 정도로 예측됨. ⇒ 이러한 노동소득 손실은 재화와 용역의 저소비를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해치고 경제회복을 저해하게 됨.

〈표 4〉 노동소득 하락분과 극도 및 중간 노동빈곤층 증대 추계

소득 계층	저소득	중위소득	고소득
노동소득(미국달러 십억불)	-860	-1,720	-3,440
극도 및 중간 노동빈곤(백만)			
세계	8.8	20.1	35.0
저소득	1.2	2.9	5.0
중하위소득	3.7	8.5	14.8
중상위소득	3.6	8.3	14.5

주: 노동빈곤추계치는 138개 저소득국가와 중위소득국을 대상으로 (PPP기준으로 \$3.20 이하인) 절대빈곤선과 관련되어 있다. 이 분석에서는 고소득국가의 노동빈곤에 대한 영향은 제외하였다.

○ 노동빈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활동의 감소로 인한 소득부담은 빈곤선에 근접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노동자들을 어렵게 할 것임.
- 경제성장에 대한 바이러스 영향은 앞서 언급한 실업과 더불어 기존에 추정했던 것(코로나 19발생이전에는 140만명 줄어든 530만명으로 추계)보다 근로빈곤층이 880만명이 늘어날 것임.

4. 결론 -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심한 것도 아침 출퇴근 시간을 대중교통에 시달려야 하는 노동자가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감염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실업과 급여감소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노동자 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감소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적 조치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업이나 불완전 고용의 확대가 나타나게 된다면 코로나 19 발생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의한 소득보전과 더불어 실업 및 불완전고용으로 고용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동조합과 정부가 협의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내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점점 짧아지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주기로 볼 때 우리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